

안트로젠 (065560)

일본 사키가케 지정 실패. 그러나 본연의 가치가 변한 것은 없다

일본 사키가케 지정 실패. 승인시점이 늦어진 것일 뿐

안트로젠이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ALLO-ASC-DEB가 일본의 혁신치료제 지정이라 할 수 있는 사키가케 지정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사키가케로 지정 받게 되면 신약신청서 접수 이후 심사 검토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올해 연말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사키가케 지정에 실패함으로써 올해 연내 출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사키가케 지정 실패가 제품의 승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트로젠은 현재 일본 후생성과 pre-NDA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 곧 신약신청서인 NDA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키가케 지정 실패로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데 실패했을 뿐 제품 승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 후생성에 NDA 신청서를 제출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기대해 본다.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로 승인되면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 경계부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 7이 유전적으로 결핍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표피와 진피가 분리되어 있어서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물집이 발생하고, 피부와 점막에 통증이 생기는 희귀 유전성 질환이다. 일본에는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가 약 500여명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일본 파트너사인 이신제약으로 안트로젠이 완제를 공급하는 구조이며, 매출액의 약 9%의 로열티는 별도 수령하게 된다. 일본은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과 같은 희귀 유전질환에 대해서는 100%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4~5일 간격으로 시트를 교체할 경우 환자 1명당 연간 치료비는 약 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신제약은 시판 이후 2~3년 내에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 절반 정도가 ALLO-ASC-DEB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트로젠이 이신제약으로 최종 판매가의 약 30% 수준의 가격으로 완제를 납품하게 된다면 로열티 9%를 포함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

안트로젠 본연의 가치가 변한 것은 없다

안트로젠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ALLO-ASC-DFU)로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국내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작년 연말 시작된 미국 임상 2상은 올해 연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키가케 지정에 실패한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키가케 지정 실패로 안트로젠의 단기 모멘텀은 사라졌으나, 안트로젠 파이프라인 본연의 가치가 변한 것은 없다.

Update

Not Rated

CP(4월 8일): 76,9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751.92
52주 최고/최저(원)	197,700/57,800
시가총액(십억원)	665.2
시가총액비중(%)	0.26
발행주식수(천주)	8,650.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69.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0
19년 배당금(예상, 원)	0
19년 배당수익률(예상, %)	0.00
외국인지분율(%)	7.24
주요주주 지분율(%)	
이성구 외 3인	14.72
이엠텍	8.1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4.6) (6.9) (45.1)
상대	(16.4) (5.0) (36.7)

Consensus Data

	2019	2020
매출액(십억원)		
영업이익(십억원)		
순이익(십억원)		
EPS(원)		
BPS(원)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십억원	1.8	3.5	4.9	5.4	3.6
영업이익	십억원	(1.6)	(0.1)	0.1	(0.1)	(2.4)
세전이익	십억원	(1.4)	(0.1)	0.4	0.4	(0.9)
순이익	십억원	(1.4)	(0.1)	0.4	0.4	(1.0)
EPS	원	(219)	(9)	50	57	(119)
증감률	%	적지	적지	흑전	14.0	적전
PER	배	N/A	N/A	471.66	802.93	N/A
PBR	배	N/A	N/A	5.20	7.85	10.81
EV/EBITDA	배	N/A	N/A	356.31	1,156.13	N/A
ROE	%	(10.46)	(0.39)	1.47	1.11	(1.87)
BPS	원	2,001	2,468	4,559	5,860	6,539
DPS	원	0	0	0	0	0



Analyst 선민정
02-3771-7785
rsshun@hanafn.com

RA 박현욱
02-3771-7606
auseing@hanafn.com

안트로젠의 주요 파이프라인

1)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ALLO-ASC-DFU)

당뇨환자의 15%가 당뇨병성
족부궤양 발생
이 중 약 1~3%의 환자가 다리 절단

당뇨병성 족부궤양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에 생기는 일종의 궤양으로 당뇨 환자의 경우 혈액이 말단의 말초혈관까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말단에 발생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못함으로써 정상인 대비 치료기간이 길고, 방치할 경우 궤양이 심각해서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당뇨병 환자의 약 15%가 일생동안 한번 이상은 족부궤양을 경험하며, 그 중 약 1~3% 정도의 환자는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당뇨병성 족부궤양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안트로젠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ALLO-ASC DFU

안트로젠이 개발한 ALLO-ASC-DFU는 동종 지방유래 줄기세포와 줄기세포 배양성분을 함유하는 시트(sheet) 형태의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상처 부위에 염증을 조절하고 상처치유에 반드시 필요한 세포성장인자 및 세포의 기질을 분비함으로써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국내 임상 2상 결과

1) 재생피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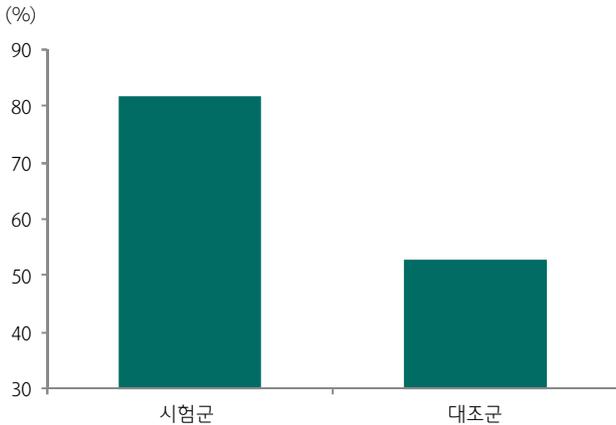
시험군:대조군 = 81.8%:52.9%

2) 재생피화에 걸리는 시간

시험군:대조군 = 28.5일:6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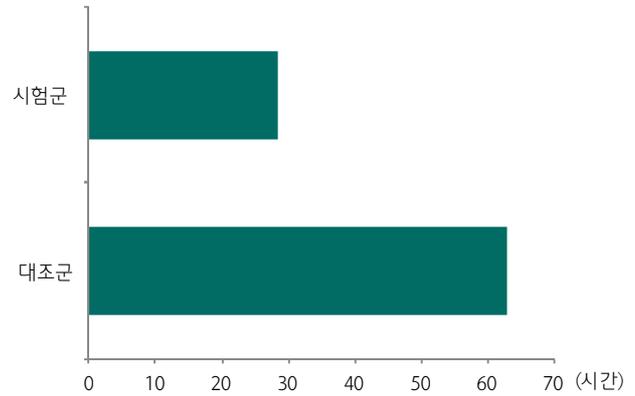
국내에서 실시된 임상 2상의 결과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1) 처치 후 12주 동안 재생피화된 대상자 비율이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며(시험군 81.8% vs, 대조군 52.9%), 2) 처치 후 재생피화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은 시험군보다 34.5일의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시험군 28.5일 vs, 대조군 63일). (시험군은 ALLO-ASC-DFU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대조군은 기존 표준요법인 드레싱 치료를 받은 환자임)

그림 2. 재상피화된 대상자 비율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그림 3. 재상피화에 걸리는 시간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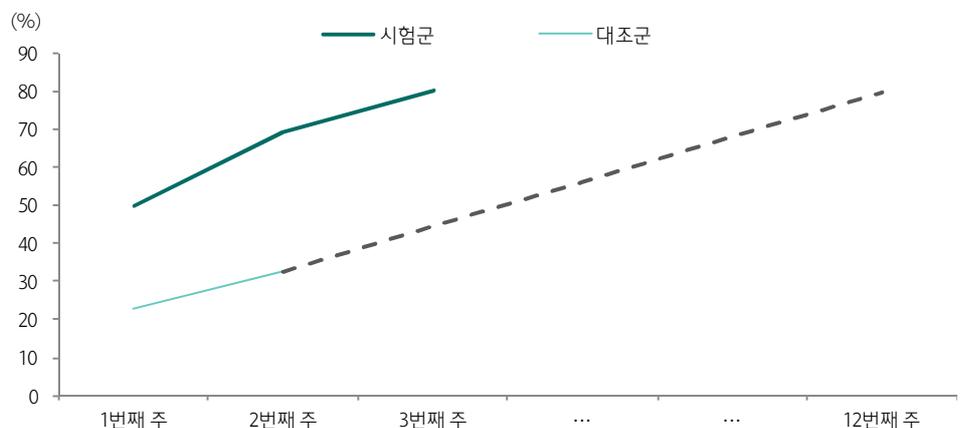
3) 궤양부위 기간 9주 단축

ALLO-ASC-DFU가 3)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치료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매주 실시한 궤양부위 개선율에서도 확인되었다. 1주차에 시험군의 49.6%가 개선된 반면, 대조군은 23.0%만이 개선되어 두 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2주차에서도 시험군은 69.1%, 대조군은 32.6%로 36.5%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시험군에서는 3주차째부터 개선율이 80% 이상인 반면, 대조군에서는 12주째에 비로소 79.8%의 개선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ALLO-ASC-DFU가 표준치료보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80% 이상 개선시키는데 최소 9주의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Grade 2의 중증도 개선 비교결과 시험군이 대조군 대비 우수

4)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중증도에 따른 분석결과에 의하면 ALLO-ASC-DFU는 Wagner grade 1(superficial ulcer, 표피궤양)과 grade 2(deep ulcer, 상처가 깊은 궤양) 대상자 모두에서 대조군 대비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Wagner grade 2 대상자에서 8주째 시험군은 8명 중 5명(62.5%)이 재상피화된 반면, 대조군은 6명 중 1명(16.6%)이 재상피화되어 ALLO-ASC-DFU는 힘줄 또는 관절막까지 침범된 깊은 궤양의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 궤양부위 개선율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표 1.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중증도 분석결과

Baseline Wagner Grade	시험군 N=22(%)	대조군N=17(%)
8주		
Grade 1	11/14 (78.6)	7/11(63.6)
Grade 2	5/8(62.5)	1/6(16.7)
12주		
Grade 1	12/14(85.7)	8/11(72.7)
Grade 2	6/8(75.0)	1/6(16.7)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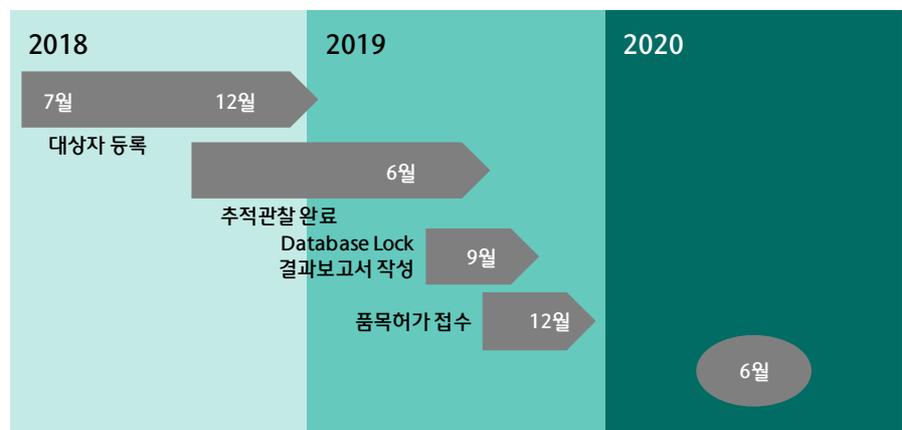
국내 임상 2상 결과는 당뇨병 관련 가장 권위있는 저널 중 하나인 Diabetes에 게재됨

위와 같은 임상결과는 올해 1월 국제 SCI급 저널인 Diabetes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Potential of Allogeneic Adipose-Derived Stem Cell-Hydrogel Complex for Treating Diabetic Foot Ulcers, Diabetes 2019 Jan 24). Diabetes라는 저널은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공식 학회지로 impact factor(영향력지수, 과학기술/사회과학 분야 누적 논문수 및 인용횟수를 통한 비교, 평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수)가 7.273으로 당뇨병 관련 연구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저널 중 하나이다. 이것은 안트로젠의 ALLO-ASC-DFU의 임상결과가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치료효과가 있음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 9개 병원 164명 환자 대상 올해 6월 완료 예정

안트로젠은 작년 7월부터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등록을 시작, 환자등록을 거의 완료하였으며, 국내에서 9개 병원에서 16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추적관찰 기간을 고려 올해 6월 임상 3상이 완료될 예정이며 올해 말 국내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그림 5. ALLO-ASC-DFU 국내 임상 3상 시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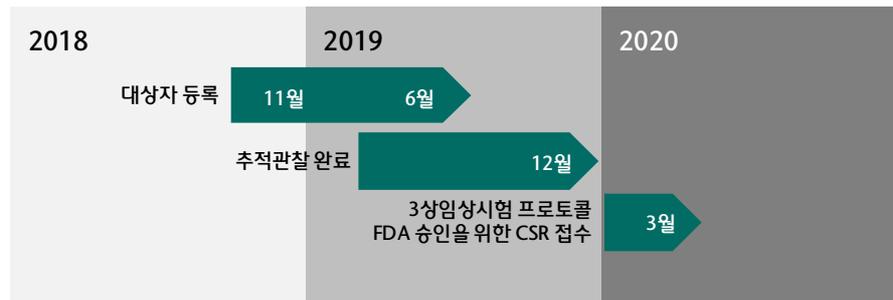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미국 임상 2상 2018년 말 시작
3개 기관 44명 환자 대상
올해 말 미국 임상 2상 완료 기대

미국에서도 ALLO-ASC-DFU의 임상 2상을 작년 말 시작되었다. 3개 기관에서 약 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적관찰 기간 고려 시 올해 연말 임상 2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ALLO-ASC-DFU 미국 임상 2상 시험 일정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2)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ALLO-ASC-DEB)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은
피부의 콜라겐 7이 유전적으로
결핍된 희귀 유전성 질환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 경계부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 7이 유전적으로 결핍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표피와 진피가 분리되어 있어서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물집이 발생하고, 피부와 점막에 통증이 생기는 희귀 유전성 질환이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질환에 대한 완치방법이 없어서 증상이나 합병증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이 주된 치료방법이다.

그림 7.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안트로젠은 현재 일본 후생성과 Pre-NDA 미팅 진행
올해 상반기 NDA 신청서 제출 예상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 가능

일본에서 1명당 연간치료비 4억원
약 500명 환자 존재
로열티 9% 별도
공급가를 판매가의 약 30%로 추정
향후 2~3년 내 400억원 매출 가능

2017년 미국에서 1상 시험승인 획득
2018년 10월 희귀의약품 지정

안트로젠은 ALLO-ASC-DEB의 임상을 일본에서 진행하였다. 안트로젠은 현재 일본 후생성과 pre-NDA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 곧 신약신청서인 NDA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키가케 지정 실패로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데 실패했을 뿐 제품 승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 후생성에 NDA 신청서를 제출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기대해 본다.

일본에는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가 약 500여명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일본 파트너사인 이신제약으로 안트로젠이 완제를 공급하는 구조이며, 매출액의 약 9%의 로열티는 별도 수령하게 된다. 일본은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과 같은 희귀 유전질환에 대해서는 100%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4~5일 간격으로 시트를 교체할 경우 환자 1명당 연간 치료비는 약 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신제약은 시판 이후 2~3년 내에 이영양성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 절반 정도가 ALLO-ASC-DEB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트로젠이 이신제약으로 최종 판매가의 약 30% 수준의 가격으로 완제를 납품하게 된다면 로열티 9%를 포함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

안트로젠은 ALLO-ASC-DEB의 미국 시장 진출도 염두해 두고 있어서 2017년 미국에서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 10월 미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시판허가 이후 7년간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참고로 안트로젠이 희귀질환으로 신청한 질환은 epidermolysis bullosa(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 하나였으나, 미 FDA는 3개 질환에 대해 지정해 주었다. 이와 같은 희귀질환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트로젠은 일본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미국에서의 임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미 FDA ALLO-ASC-DEB 희귀의약품 지정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Generic Name:	adipos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in a hydrogel sheet
Trade Name:	N/A
Date Designated:	10/25/2018
Orphan Designation:	Treatment of Epidermolysis Bullosa
Orphan Designation Status:	Designated
FDA Orphan Approval Status:	Not FDA Approved for Orphan Indication
Marketing Approval Date:	N/A
Approved Labeled Indication:	
Exclusivity End Date:	N/A
Sponsor:	Anterogen Co., Ltd. 405, Namsung Plaza 130 Digital-ro Seoul Korea, Republic of <small>The sponsor address listed is the last reported by the sponsor to OOPD.</small>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그림 9. 안트로젠 주요 파이프라인

	적용기술	제품명 개발 코드	전임상	1상	2상	3상	품목허가
자가	면역조절기능 강화 줄기세포 대량생산기술	큐피시스템					●
		ALLO-ASC-CD (크론병 치료제)	임상 1상 진행 중				
동종	줄기세포 3차원 배양 조직공학기술	ALLO-ASC-DFU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				
		ALLO-ASC-DEB (이양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치료제)	임상 1/2상 진행 중				
		ALLO-ASC-BI (심재성 2도 화상 치료제)	임상 2상 진행 중				
		ALLO-ASC-OA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전임상				

자료: 안트로젠, 하나금융투자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1.8	3.5	4.9	5.4	3.6
매출원가	0.8	1.2	1.4	2.1	1.9
매출총이익	1.0	2.3	3.5	3.3	1.7
판매비	2.6	2.5	3.4	3.3	4.1
영업이익	(1.6)	(0.1)	0.1	(0.1)	(2.4)
금융손익	0.2	0.1	0.3	0.7	1.5
중속/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기타영업외손익	(0.1)	(0.1)	(0.0)	(0.1)	0.0
세전이익	(1.4)	(0.1)	0.4	0.4	(0.9)
법인세	0.0	0.0	0.0	0.0	0.0
계속사업이익	(1.4)	(0.1)	0.4	0.4	(1.0)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4)	(0.1)	0.4	0.4	(1.0)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0.0	0.0	0.0	0.0	0.0
지배주주순이익	(1.4)	(0.1)	0.4	0.4	(1.0)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5)	0.0	0.3	3.9	(1.9)
NOPAT	(1.6)	(0.1)	0.1	(0.1)	(2.5)
EBITDA	(1.3)	0.2	0.4	0.3	(1.9)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00.0	94.4	40.0	10.2	(33.3)
NOPAT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적지
EBITDA증가율	적지	흑전	100.0	(25.0)	적전
영업이익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0.0	적전
EPS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4.0	적전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55.6	65.7	71.4	61.1	47.2
EBITDA이익률	(72.2)	5.7	8.2	5.6	(52.8)
영업이익률	(88.9)	(2.9)	2.0	(1.9)	(66.7)
계속사업이익률	(77.8)	(2.9)	8.2	7.4	(27.8)

투자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당지표(원)					
EPS	(219)	(9)	50	57	(119)
BPS	2,001	2,468	4,559	5,860	6,539
CFPS	(136)	56	137	94	(119)
EBITDAPS	(204)	26	58	38	(229)
SPS	283	536	662	687	446
DPS	0	0	0	0	0
주기지표(배)					
PER	N/A	N/A	471.7	802.9	N/A
PBR	N/A	N/A	5.2	7.9	10.8
PCFR	N/A	N/A	173.3	491.8	N/A
EV/EBITDA	N/A	N/A	356.3	1,156.1	N/A
PSR	N/A	N/A	35.8	67.0	158.6
재무비율(%)					
ROE	(10.5)	(0.4)	1.5	1.1	(1.9)
ROA	(9.7)	(0.4)	1.4	1.0	(1.2)
ROIC	(34.4)	(2.5)	1.5	(0.9)	(16.1)
부채비율	11.6	11.1	4.1	24.7	80.9
순부채비율	(66.1)	(73.9)	(67.9)	(53.7)	(14.4)
이자보상배율(배)	N/A	N/A	N/A	(1.6)	(1.5)

자료: 하나금융투자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유동자산	10.2	13.9	25.4	37.7	59.5
금융자산	8.6	12.3	23.1	34.4	50.9
현금성자산	1.7	4.8	6.7	11.9	16.8
매출채권 등	1.0	1.2	1.5	2.3	2.2
재고자산	0.5	0.3	0.4	0.6	0.8
기타유동자산	0.1	0.1	0.4	0.4	0.6
비유동자산	4.3	4.5	10.1	20.4	41.9
투자자산	0.0	0.0	0.1	11.4	28.5
금융자산	0.0	0.0	0.1	11.4	0.2
유형자산	2.1	2.2	7.0	7.3	10.4
무형자산	2.1	2.3	3.0	1.7	3.0
기타비유동자산	0.1	0.0	0.0	(0.0)	(0.0)
자산총계	14.5	18.5	35.4	58.1	101.4
유동부채	1.1	1.3	0.6	6.5	33.4
금융부채	0.0	0.0	0.0	5.1	32.5
매입채무 등	1.0	1.3	0.6	1.3	0.9
기타유동부채	0.1	0.0	0.0	0.1	(0.0)
비유동부채	0.5	0.5	0.8	5.1	11.9
금융부채	0.0	0.0	0.0	4.2	10.3
기타비유동부채	0.5	0.5	0.8	0.9	1.6
부채총계	1.5	1.8	1.4	11.5	45.4
지배주주지분	13.0	16.6	34.0	46.6	56.1
자본금	3.2	3.4	3.7	4.0	4.2
자본잉여금	14.8	18.9	35.3	45.5	56.6
자본조정	0.7	0.1	0.5	0.7	0.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3.5	2.5
이익잉여금	(5.8)	(5.8)	(5.6)	(7.0)	(8.0)
비지배주주지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13.0	16.6	34.0	46.6	56.1
순금융부채	(8.6)	(12.3)	(23.1)	(25.1)	(8.1)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영업활동 현금흐름	(1.0)	0.8	(0.1)	0.4	(1.5)
당기순이익	(1.4)	(0.1)	0.4	0.4	(1.0)
조정	0.8	0.6	1.0	0.7	0.2
감가상각비	0.3	0.3	0.3	0.4	0.6
외환거래손익	0.0	0.0	0.0	0.1	0.0
지분법손익	0.0	0.0	0.0	0.0	0.0
기타	0.5	0.3	0.7	0.2	(0.4)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0.4)	0.3	(1.5)	(0.7)	(0.7)
투자활동 현금흐름	1.6	(1.3)	(15.0)	(15.2)	(37.7)
투자자산감소(증가)	(0.0)	(0.0)	(0.0)	(11.3)	(17.1)
유형자산감소(증가)	(0.2)	(0.3)	(5.0)	(0.6)	(3.6)
기타	1.8	(1.0)	(10.0)	(3.3)	(17.0)
재무활동 현금흐름	0.0	3.6	16.9	20.0	44.1
금융부채증가(감소)	0.0	0.0	0.0	9.3	33.5
자본증가(감소)	0.0	4.2	16.7	10.4	11.3
기타재무활동	0.0	(0.6)	0.2	0.3	(0.7)
배당지급	0.0	0.0	0.0	0.0	0.0
현금의 증감	0.6	3.1	1.9	5.2	5.0
Unlevered CFO	(0.9)	0.4	1.0	0.7	(1.0)
Free Cash Flow	(1.2)	0.6	(5.2)	(0.3)	(5.1)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2.2%	7.2%	0.6%	100.0%

* 기준일: 2019년 4월 8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선민정)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19년 04월 0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선민정)는 2019년 04월 09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